

행복한 아빠의 육아 일기

글.
박은종 OBS 경인TV 기술국



일요일 아침 저는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지 않으려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지만 몇 시쯤 됐는지 궁금합니다. 거실에서 1호와 2호가 TV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눈을 떠 핸드폰 시계를 봅니다. 10시는 안 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1호가 쾅쾅 달려와 인사를 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 다시 TV를 보러 갑니다. 1호는 어느덧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의젓합니다. 2호를 찾아봅니다.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형이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따라 하는데 인사는 예외입니다.

“2호~, 아빠한테 인사 하세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2호는 고개도 안 들고 핸드폰을 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2호는 4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강아지입니다. 사람처럼 말을 제법 하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갑니다. 조금 더 사람이 되어가겠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주무셨어요~”

2호가 잘 안 되는 발음으로 뒷말만 따라 말합니다. 아빠가 왜 다시 인사하는지를 눈치로 알고 있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퇴근 후, 현관문 여는 소리에 1호는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쾅쾅 달려와 인사를 합니다. 2호는 마음이 내켜야 그나마 ‘아는 척’이라도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아내가 노화방지용 마법의 가루를 섞은 우유를 한잔 내줍니다. 식탁에 앉으니 아내는 무슨 소리를 하는데, 저는 현

드폰을 보느라 내용도 모르고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2호가 아빠에게 대충 인사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1, 2호는 이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아빠가 일어났으니 몸으로 놀아야 합니다.

“아빠랑 샤크 놀이할까?”

1호가 2호에게 미끼를 던지고,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보입니다.

“아빠, 샤크 해요~”

2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핸드폰을 놓고 저를 침대로 끌어 당깁니다. 상어 입 모양처럼 두 팔을 크게 벌려서 침대 위에 있는 두 아들 녀석들을 공격합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소리치면서, 아주 신나서 숨을 헉헉댑니다. 참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는 늦잠을 잡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데 오늘은 오후조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더 자려고 기를 쓰지만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1, 2호는 TV를 보면서 엄마와 같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1호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2호는 썩~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마법의 가루를 섞은 요구르트를 한 잔 주면서 아내는 우유를 사다 달라 합니다. 마법의 가루는 OO베리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거랍니다. 일반과 유기농이 있는데 가격이 배 차이 납니다. 한 통 사면 1년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유기농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먹는 거라면 2달 정도 분량 같습니다. 항산화 기능 제품인데, 젊은 아빠가 되야한다며 베킷머리 송사로 저를 낚았습니다.

입춘은 이미 지났지만 밖은 아직 춥습니다. 추레하게 공공 싸매고 우유를 사러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 갔는데 우유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먹을 양이지만 그래도 더 싱싱한 것을 찾겠다고 다른 마트로 발길을 돌립니다. 때마침 아내 전용으로 지정해놓은 핸드폰 벨소리 - 다들 아내 전용 벨소리는 지정해놓으셨죠? - 가 울립니다. 마늘 2천 원어치, 깻잎 천 원어치의 추가 주문이 들어옵니다. 아내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오니 두 강아지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1호가 6살 때 사촌형인 8살짜리 악당이 핸드폰 게임을 전수해주려고 할 때, 닌OO 위 하드로더 버전을 중고OO에서 공수해왔습니다. 아빠랑 큰 화면으로 같이 하자고 꼬드겨서 핸드폰 게임 입문을 겨우 막았습니다.



2호는 아직 리모컨 조작이나 게임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형 옆에서 같이 할 수만 있어도 좋은가 봅니다. 1호는 2호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게임을 이어나가지만 1시간째 혼자 하다 보니 재미없습니다. 이제 또 아빠랑 놀고 싶습니다. 2호는 형이 게임을 그만하자 난리났습니다.

“게임!, 게임~~”

징징댑니다.

“우리 재윤이는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형이 그만하자고 해서 많이 속상하구나?”

2호의 속상함을 같이 공감해줍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면서 눈물을 억지로 쥐어 짜냅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TV를 가리킵니다. 속상한 마음을 아빠가 알아줬지만 게임은 계속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 재윤이 혼자서 게임 못하니까 이따가 점심 먹고 형이랑 다시 게임하자. 이제 아빠랑 동화책 볼까?”

“샤크 해요”

아빠랑 놀 때는 동화책보다 샤크 놀이죠. 동화책이야 엄마가 언제든지 읽어주니까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 줄 때마다 부처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중 하루 쉬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주말과 같은 날이어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1호와 둘이서 스키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2호는 스키타기에는 너무 어려서 엄마가 돌봐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좋다고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는 정성스레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서 작은 아이스박스에 컵라면 두 개, 김치와 밥 그리고 간식거리로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줍니다. 1호가 스키복을 챙겨 입는 동안 2호는 거실에서 뒹굴 거리면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형만 데리고 나가는데 별로 샘내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이 지났지만 도로에는 차가 많습니다. 끝말잇기 게임을 1호가 제안합니다. 1호 수준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호는 들리는 대로 끝말을 이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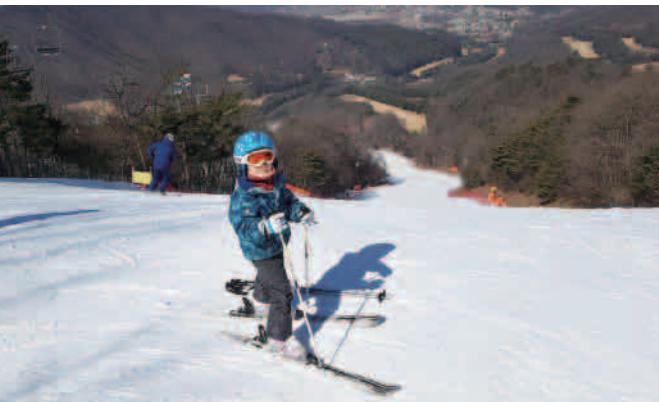
“기저귀”, “기름”

‘름’으로 시작하는 낱말이 있나요? 제가 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사이먼 앤 가펄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가 나옵니다. 볼륨을 높이고 같이 흥얼거립니다. 가사는 모릅니다. 노래가 다 끝나고 1호가 좋은 노래라고 감상평을 말합니다.

하얀 눈의 슬로프를 보니 막혔던 길이 뚫리는 것처럼 가슴이 탁 트입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1호는 또 폭풍 질문을 시작합니다.

“아빠, 눈 감쪽할 사이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아빠, 블랙홀에서 화이트홀 사이를 통과하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리겠죠?”



우리 1호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재훈이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아빠가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질문이다. 속도, 블랙홀, 화이트홀은 어떤 책에서 봤어?”

“책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많이 읽어 보자~”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해주는 아빠의 칭찬에 1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대단해~’, ‘그렇구나~’ 갖가지 추임새로 1호의 세상을 들어줍니다. 오늘 저녁에 1호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볼 것입니다.



오전조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합니다. 오늘은 근처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옷가게에서 할인 행사를 하니까 가야 한다며 어제저녁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15분 후 집에 도착하니 1, 2호와 벌써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애 둘을 준비시키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쇼핑은 아내를 초능력자로 만듭니다.

마트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1, 2호에게 오늘 쇼핑의 목적을 말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필요한 것만 살 거예요~”

“장난감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네~”

강아지들에게 다짐을 받고 마트에 들어섭니다. 2호는 자기가 쇼핑카트에 돈을 넣겠다고 시도를 하지만 아직 키가 작습니다. 2호를 살짝 들어줘서 동전을 넣게 하고 카트를 겨우 빼냈습니다. 아직 쇼핑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이 듭니다.

아내는 오픈행사 매장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관문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정독한 결과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서ულ대 갔을 겁니다. 한껏 레이더를 세우고 마치 재고조사 하듯 매장을 돌아다닙니다. 2호는 매장에서 나눠준 풍선을 가지고 노느라 신났습니다. 1호는 어떤 신상 장난감이 입고 댔는지 궁금합니다.

“아빠, 장난감 보러 가요”

드디어 1호가 인내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2호를 안고 장난감 코너로 이동합니다. 아내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2호는 엄마 놔두고 간다고 안 된다고 하더니 장난감 보러 가자고 하니까 바로 ‘엄마 안녕~’ 합니다.

1호는 장난감 코너가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저도 자동차 용품

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아내를 흥볼 일이 아닙니다. 1호가 먼저 가니까 2호도 내려달라고 합니다. 엔진 회전수를 높이고 있던 경주용 차가 튀어나가듯 2호는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아빠,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1호가 신상을 발견하고 한참을 구경합니다. 2호는 많은 장난감이 그저 좋습니다. 여기저기 만져보고 눌러보다가 형 옆으로 가서 말을 겁니다.

“이거 뭐야?”

2호가 장난감 하나를 가리킵니다. 글씨를 읽을 줄 아는 1호가 대답해줍니다. 글씨를 몰라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호는 계속 장난감을 가리키면서 물어보고 1호는 거침없이 대답해줍니다. 1호에게 정말 많이 안다고 칭찬해 줘야 할까요? 2호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알려줍니다. 1호가 도발을 하자 2호는 장난감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막 질문을 합니다. 1호는 방해꾼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빠, 아빠”

2호는 이제 아빠에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집에 있고, 이것도 집에 있고, 이거 뭐예요?”

다시 2호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 눈엔 다 똑같은 로봇인데 색깔이 조금 다르거나, 2단 합체, 3단 합체하면서 종류만 늘려 놓은 것 같습니다. 대단한 상술입니다.

2호를 따라다니고 있는 동안 다른 곳에 있던 1호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이리 와 보세

요. 제 생일에 받을 선물 골랐어요”

1호에게 한 방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지만 생일에는 선물로 받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고 블록을 골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장난감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터넷 가격을 알아봅니다. 매장보다는 저렴합니다. 참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2시간 가까이 장

난감 구경은 힘듭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제부터 장을 봐야 한답니다.

“애들아, 엄마가 찾는다~”



토요일 오전, 알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오늘은 오후반인데 너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마법의 가루를 탄 우유를 주면서 두 아들 녀석들과 목욕탕에 다녀오라 합니다.

“오예~, “야호, 신난다~”

우리 집 강아지들은 목욕탕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1호는 냉탕에서 수영하고 2호는 온탕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아내는 목욕탕에서 먹을 간식을 챙겨 줍니다. 베란다 밖으로 햇살이 좋습니다.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날이 추워서 차로 이동했는데 오늘은 걸어가기로 합니다. 2호를 이리저리 잘 몰아서 겨우겨우 목욕탕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이 많습니다. ‘이런 목욕탕 하려면 얼마나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아빠, 봐봐요~”

1호는 냉탕에 뛰어들었고, 2호는 자기를 봐달라며 아빠를 부릅니다. 따뜻한 탕에 들어가니 기분이 좋습니다. 1호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고, 2호는 온탕 안에서 연거푸 잠수를 해 댁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2호가 배고프다고 합니다. 오늘은 탕 물을 많이 안 먹었나 봅니다. 물기를 닦고 나와 간식을 먹습니다. 2호가 욕심을 부려보지만 1호가 요령껏 잘 먹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찼는지, 두 녀석이 장난을 시작합니다. 1, 2호의 웃음소리가 목욕탕 웃장 사이로 퍼집니다.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아이들이 때 묻지 않고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애들아,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정말 행복합니다.♡

